# 약속과 실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3년

UM00003919
U
01-02-04
약55ㅇ
0년대

한반도시대의 개막

# 대립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http://unibook.unikorea.go.kr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 지 3년, 냉전의 빙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남과 북도 서로 문을 열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갈등에서 신뢰로! 대결에서 화해로!
21세기 한반도는 새로운 기운으로 용솟음칩니다.

# 멋진 만남, 굳은 약속

## ● 정상의 만남, 공존공영을 향한 출발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였고,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반목의 시대를 뛰어넘은 통쾌한 만남!**
**민족의 장래를 위한 굳은 약속!**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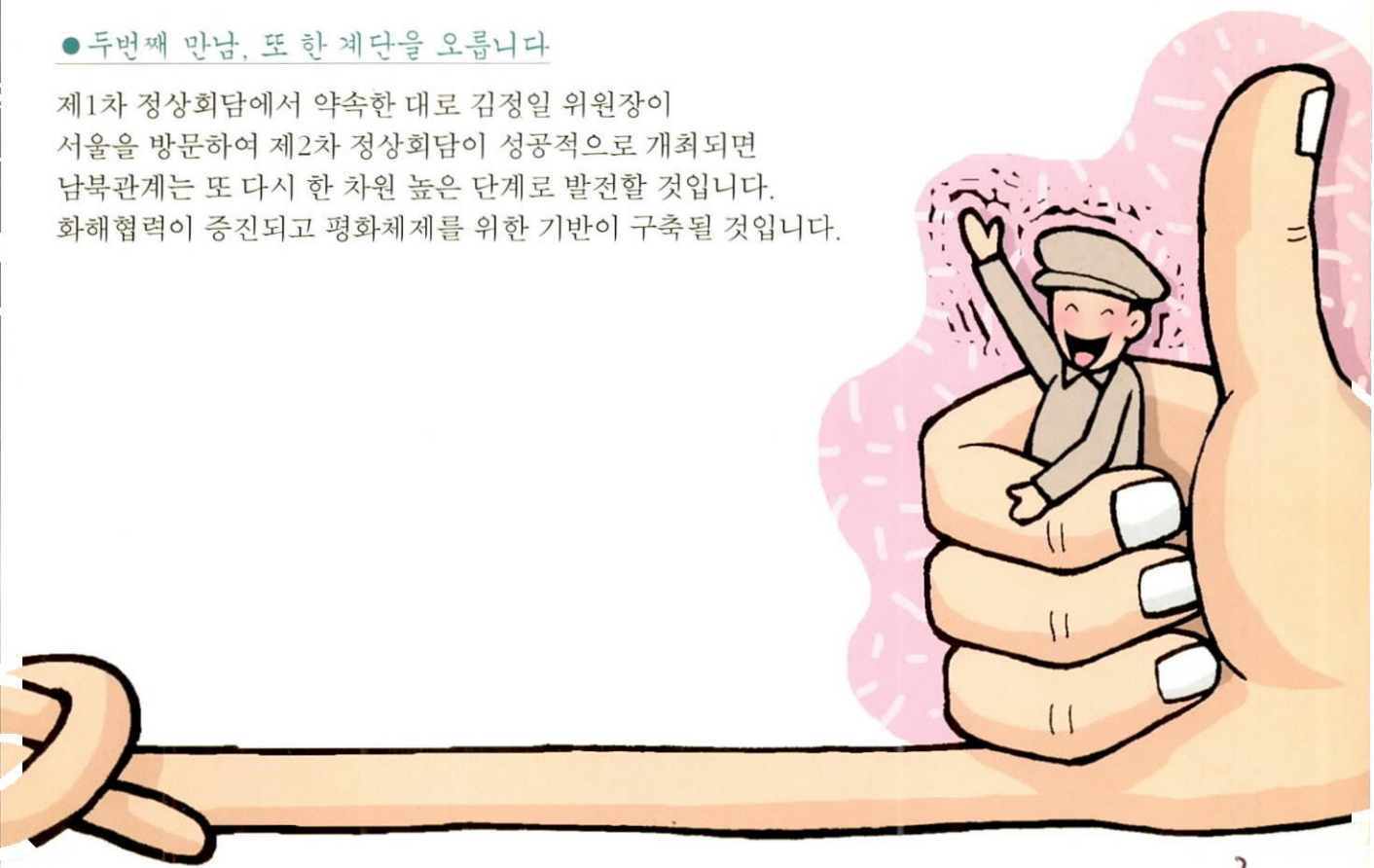
## ● 지켜야 할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방향과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 · 15 남북공동선언' 에 합의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이후 남북은 굳은 의지로 공동선언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북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두번째 만남, 또 한 계단을 오릅니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관계는 또 다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화해협력이 증진되고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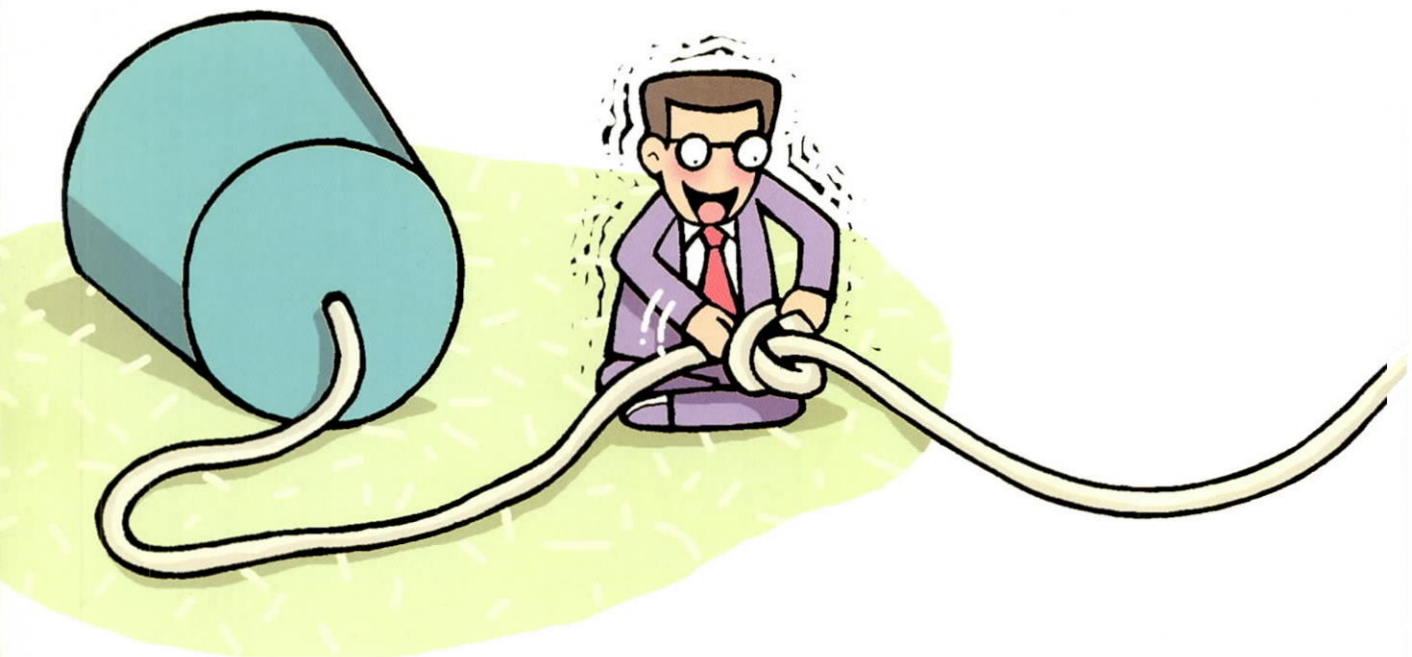


# 막히면 트고, 꼬이면 풀고, 굽으면 폅니다

## ●남북간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고,
때로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동안 4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총31개항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 25개항이 우리측이 제안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간 대화는 우리측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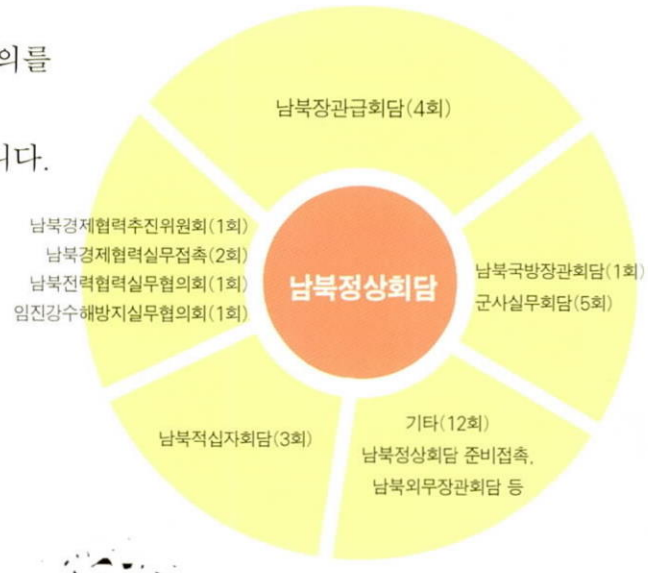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경제, 군사 등 각 분야별 대화의 틀이 마련되어 남북공동선언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 ● 분야별 심층대화가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회담을 개최하여, 심층적 대화를 통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합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면 어려운 문제도 수월해지기 마련입니다.




〈총 31회 회담개최(00~01.2.22)〉

# 축구도, 경제도 단일팀이면 강해집니다

●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경의선 철도 및 도로(문산-개성) 복원 추진→물류비용 절감, 아시아-유럽간 철의 실크로드 연결
— 개성공단 조성사업, 경수로 건설 지원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등 추진

● 경제협력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북투자의 보호 · 촉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타결
— 남북경협을 위한 접촉 · 방북요건 완화, 남북교역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경협기업에 자금대출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자연자원을 합쳐**
**남북경제공동체의 터전을 닦아갑니다.**
**남북경협은 북의 개방과 남북 모두의 경제활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남북교역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2000년 남북교역액 4억2천5백만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교역품목과 업체도 계속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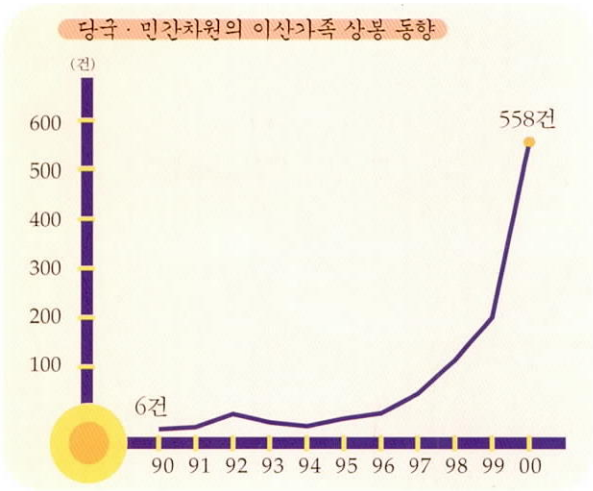
## ●다양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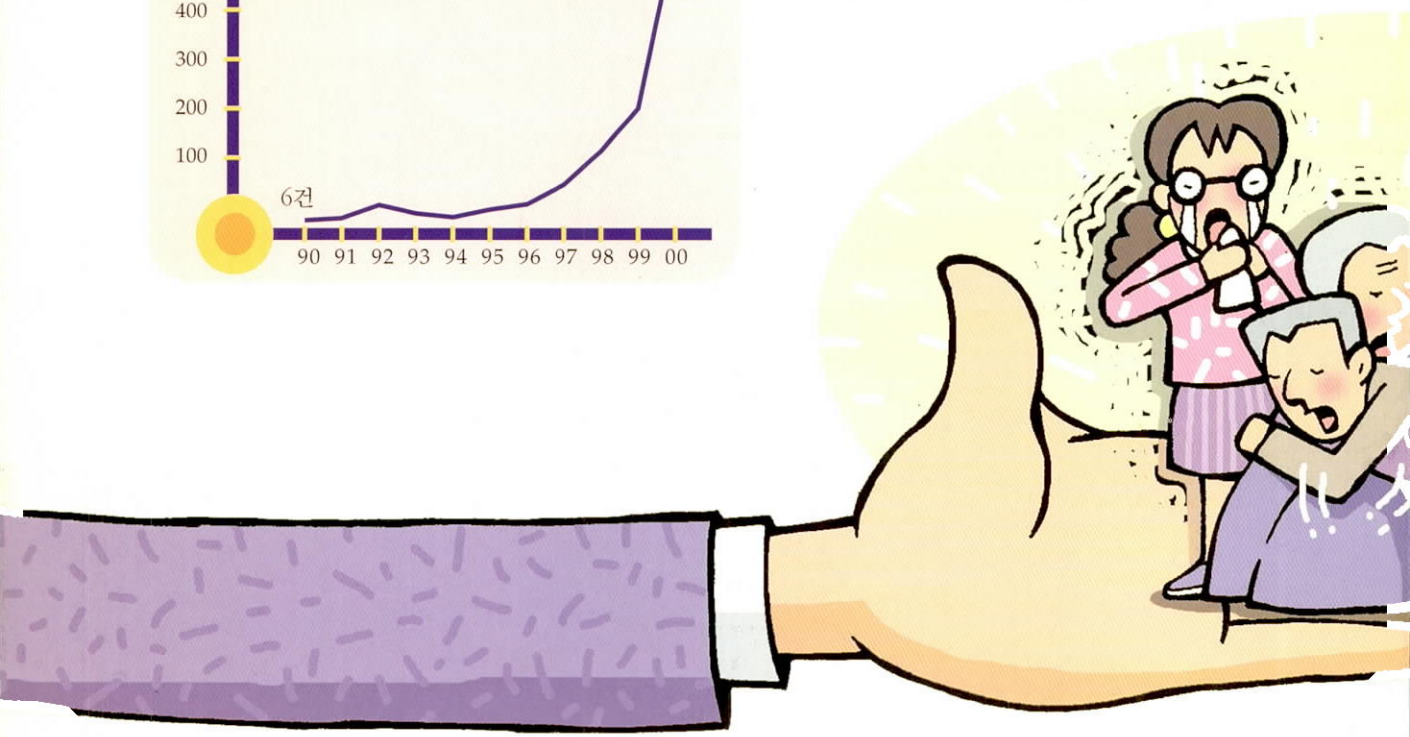
— '평화자동차' 자동차 조립 · 수리공장, '태창' 금강산 샘물 합영공장, '국제 옥수수재단' 의 신품종 옥수수 종자 개발사업 등

#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 남북 총 2,370여명이 그리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 2000년 : 1, 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2001년 :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1차, 2차 생사 · 주소확인, 서신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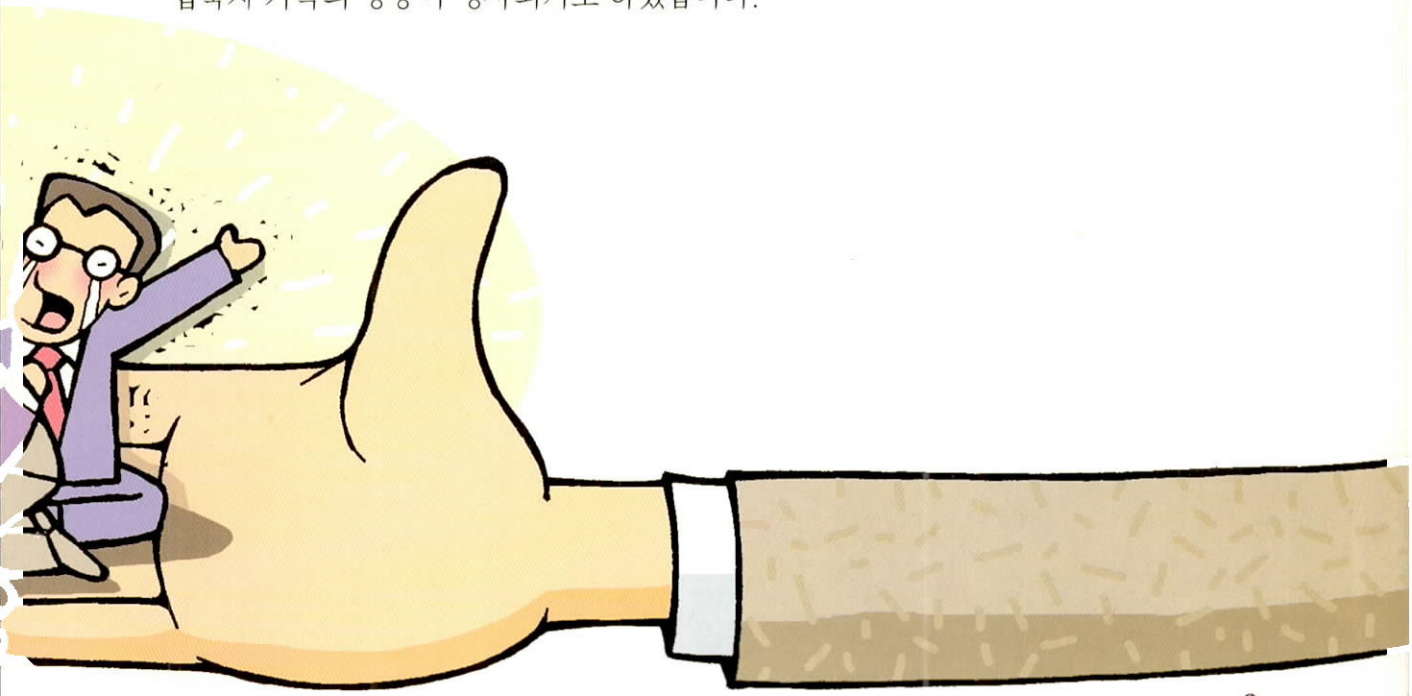
**갈라진 핏줄이 만나는 기막힌 상봉장면을 보며, 7천만 동포는 물론 온 세계가 남북이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새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교류규모를 계속 늘려 나가고, 상설 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 제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류경비 지원 :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
—인터넷 서비스 실시 : http://reunion.unikorea.go.kr
—교류절차 간소화 : 방북 승인제→신고제, 신청서류 간소화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해결을 북한측에 끊임없이 촉구하였으며, 지난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시에는 납북자 가족의 상봉이 성사되기도 하였습니다.



# 자주 오가면, 곧 한 식구

##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1만7천여명의 주민이 남북을 서로 오갔으며,
금강산 방문인원은 38만여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북측 인사들의 남한방문도 활발해져 2000년에는 706명이 다녀갔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을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는 남북간의 인적왕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류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 ● 사회, 문화, 종교, 체육, 예술, 관광, 언론 등으로 교류분야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접하며 남북의 삶의 단면들을 알게 되었고, 시드니 올림픽에 동시 입장하여 세계인 앞에 하나되는 한민족의 끈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따로 살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삶은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평양교예단 공연(00.5)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00.8) 등

통일농구경기대회(99 .9,12),
시드니올림픽 개 · 폐회식 남북한 동시입장 등

부활절 연합예배(00.4),
남북 불교도 8 · 15 동시법회(00.8) 등

언론사 사장단 방북(00.8),
KBS 백두산 현지 생방송(00.9),
SBS 평양 현지 생방송(00.10) 등

# 북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 북한은 실용주의정책과 개방노선을 채택,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들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는 '新思考' 를 강조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월 중국의 경제특구인 상해시 포동지구 등을 방문하고, 개방 ·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

## ●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신년사설 등을 통해 '6 · 15 공동선언' 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우리와의 관계개선에 적극적

—정상회담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 중지

—특히 남북국방장관회담(00.9, 제주)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협력과 비무장지대내 남북관리구역 설정에 합의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해 오고 있으며, 서방국가와의 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 속에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 이탈리아 · 호주 · 필리핀 · 영국과 수교
—2001년 : 네덜란드 · 벨기에 · 캐나다 · 스페인과 수교, 독일 · 그리스 등과 수교협상 중

●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었습니다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 (00.10),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서울선언' (00.10),
노벨평화상 수상(00.12)

# 2001년 대북정책—꾸준하게, 확실하게

## ● 남북간 화해협력을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분야별 남북회담의 지속 추진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다양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 ● 국제사회의 협조 속에 남북이 주인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 · 참여하는 방향으로 평화협정 체결 추진
—정상회담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한 · 미 · 일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 긴장 완화 노력

**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으로 남북평화협력을 실현해 갑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을 실천해 갑니다

—자주국방 태세와 한 · 미 연합전력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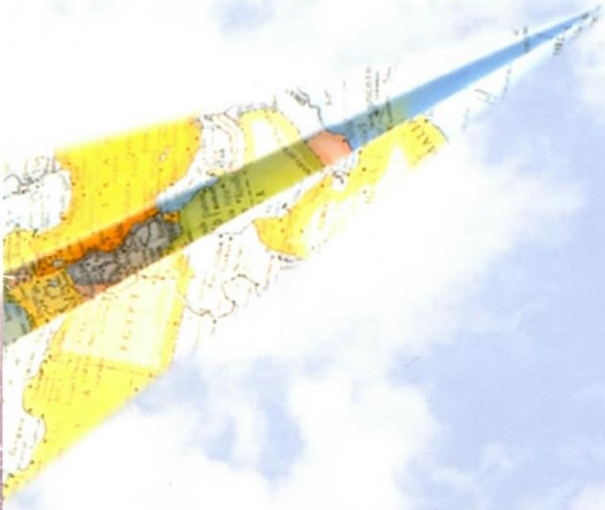
● 국민의 지지와 합의는 대북정책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초당적 협조 노력과 사회각계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

# 약속은 꼭 실현될 것입니다

평화와 화해협력을 향한 남북의 노력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
보다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5천년 역사를 지닌 한민족.
그 깊은 뿌리로부터 성장한 민족의 역량을 모아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머리,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날을 그립니다.



평화와 협력,
적극적으로 개척할 때만이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www.unikorea.go.kr

c.2
0
466 - 8305